

2025.05.28.(수) 증권사리포트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에브리봇

서비스 로봇 업체도 주목

[출처]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서비스 로봇 시장: AI와 자율주행으로 확장 중

최근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첨단 로봇 기술은 산업용 로봇 시장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비용 절감 및 안전성 강화 등의 실질적 필요와 경제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다르게 서비스용 로봇은 높은 비용과 실질적 대체성의 부족으로 첨단 기술 적용이 더디게 진행됐다. 또한 로봇 청소기로 대표되는 가사용 로봇 시장이 서비스용 로봇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산업용 로봇 대비 첨단 기술 적용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생성형 AI 및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제품군의 사용성 증가와 신규 제품군의 출현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Citi Global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청소기 시장은 AI 기술 도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상업용 청소 로봇 및 창문 청소 등의 특수용도 영역으로의 확대 뿐 아니라 IoT 기반 다양한 신규 서비스용 로봇 제품군 출시도 본격화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사업 본격화가 이끄는 턴어라운드

동사의 24년 실적은 매출액 297억원(YoY -6%), 영업이익 -21억원(적자전환)으로 부진했다. 매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봇 청소기 시장의 경쟁 심화 및 R&D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동사는 시장 트렌드에 맞춘 올인원 로봇청소기 출시에 이어 창문 및 침구 로봇 청소기 출시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다. 특히 침구 로봇청소기는 24년 10월 출시 이후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 중으로, 1Q25 기준 매출 비중 15.4%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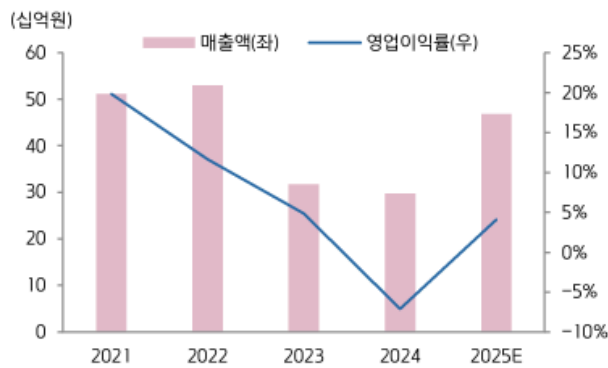
동사 성장의 핵심은 AI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부문이다. 동사는 SK 계열사의 웰니스 로봇에 탑재되는 AI 자율주행부 개발을 진행 중이다. 로봇 청소기 사업을 통해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센싱 및 제어기술, SLAM, 사물 인식 AI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4년 공동 개발에 착수한 이후 1Q25 개발 용역 계약 체결 및 올해 하반기 양산 본격화를 전망한다. SK 네트웍스의 로보틱스 브랜드 '나무엑스'는 자율주행을 통한 공기 청정 및 바이탈 사인 체크, 대화형 서비스 등이 가능한 웰니스 로봇 'A1'을 7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공정 공시를 통해 제시한 동사의 25년 매출액 전망치는 468억원(YoY 57%)이며, 높아진 R&D 비용에도 영업이익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51.1	53.0	31.7	29.7
영업이익	10.1	6.2	1.5	-2.1
EBITDA	11.0	7.4	3.1	0.1
세전이익	10.5	8.2	2.6	0.1
순이익	9.5	6.9	2.8	0.8
지배주주지분순이익	9.5	6.9	2.8	0.8
EPS(원)	844	570	231	63
증감률(%YoY)	흑전	-32.4	-59.5	-72.6
PER(배)	23.4	25.9	52.3	260.1
PBR(배)	4.20	2.89	2.26	3.03
EV/EBITDA(배)	20.3	23.1	45.1	2,831.6
영업이익률(%)	19.8	11.7	4.7	-7.1
ROE(%)	25.5	11.6	4.4	1.2
순차입금비율(%)	-30.7	-13.3	-13.4	14.3

자료: 키움증권

에브리봇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에브리봇, 키움증권

웰니스 로봇 브랜드 나무엑스의 AI



자료: SK네트웍스, 키움증권

에브리봇 침구 청소로봇 X1



자료: 에브리봇, 키움증권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 하이코어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LiDAR 및 Vision 기반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개발



자료: 에브리봇, 키움증권



S-Oil

5년 주기로 바닥이 왔다. Conviction BUY

[출처] 하나증권 윤재성 애널리스트

5년 마다 대바닥을 찍는 주가

S-Oil 주가는 지난 주 금요일(5/23일) 장중 50,000원으로, 2020년 3/23일 종가 48,500원 이후 5년 래 최저가를 기록했다. 그 전 신저점은 2014년 11/5일 38,170원, 2010년 5/27일 49,150원이다. 평균 5년을 주기로 주가가 대바닥을 찍었던 셈이다. 정유업종의 큰 사이클은 결국 유가와 이를 결정하는 경기의 함수

이며, 해당 시점은 대부분 유가나 경기의 저점이었다. 유가 약세 시 정제설비 증설도 미뤄져 이후 회복기에 정제마진이 동반 상승하며 Up-Cycle에 힘을 보탠다. 하나증권은 현 수준이 유가의 저점이라 판단한다. 2027년 미국 원유 생산량 Peak Out 전망이 대두되고, WTI 60\$ 이하에서 Capex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북미 업체들이 늘고 있으며 미-중 관세 전쟁도 완화 국면을 통과 중이기 때문이다.

중장기 정제마진 강세와 수출 확대 예상

향후 WTI는 60~70\$를 예상하며, OPEC+의 빠른 감산 완화와 캐나다 원유의 아시아 유입으로 OSP는 안정화되며 원가 부담을 낮춰줄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 정제설비 순증설은 2023~24년을 Peak로 크게 감소(2025년 YoY -64%, 2027년 이후 전무)해 정제마진 강세를 견인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No.2 미국(M/S 18%)은 정제설비 폐쇄가 예정되어 있는 반면, 트럼프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폐지로 내연기관의 생명은 2029년까지 연장되어 석유제품 재고가 25년 래 최저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결국 미국의 석유제품 수출 감소 요인이다. No.1 중국(M/S 19%) 또한 정제설비 증설 제한에 따라 최근 석유제품 수출이 급격한 감소세다. 미국/중국의 수출 축소에 따른 반사 수혜는 글로벌 정제설비 규모 No.5 이자 Capa의 절반을 수출하는 한국 정유업체의 몫이다. 이미 정제마진은 10\$에 근접해 연중 최대치까지 상승했고, 추가 강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사적 최저치까지 하락한 밸류에이션. 1차 타겟 PBR 1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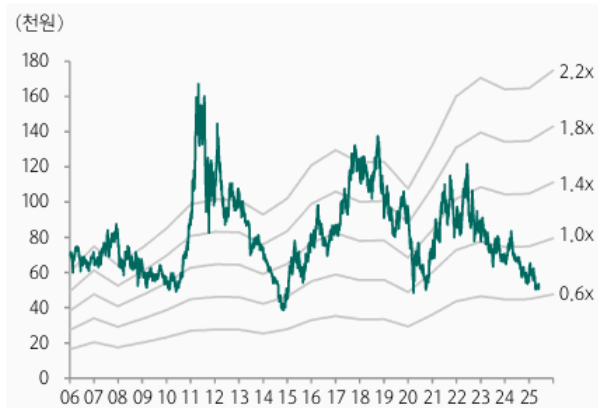
BUY, TP 8만원을 유지한다. 주가는 과거 저점과 유사한 수준(5만원 전후)이나, Valuation은 역사적 최저치인 12M Fwd PBR 0.68배다. 2014년, 2020년 유가 급락기에도 PBR 1배가 마지노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 전기차 침투율 확대에 따른 구조적 업황 부진 우려 2) 부채 확대, 배당 축소를 동반한 대규모 투자인 샤텐PJ에 대한 우려 모두를 반영한 De-rating 상태다. 하지만, ① 트럼프의 정책이 최근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폐지에 따른 내연기관의 생명 연장, IRA 세액공제 45Q/45Z 기준 대로 유지, EPA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철폐 추진 등으로 전통 에너지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 ② 현 석유화학 시황에서도 샤텐PJ는 유의미한 실적 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5년 간 이뤄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는 머지 않았다. 2025년 영업이익 5.7천억에서 2026년 1.5조원으로 YoY +163% 대폭 증익되며 스스로를 증명할 것이다. 수 십년 간 Bottom을 지지했던 PBR 1배인 약 8만원이 이제는 1차 목표주가다. 섹터 Top-Pick 제시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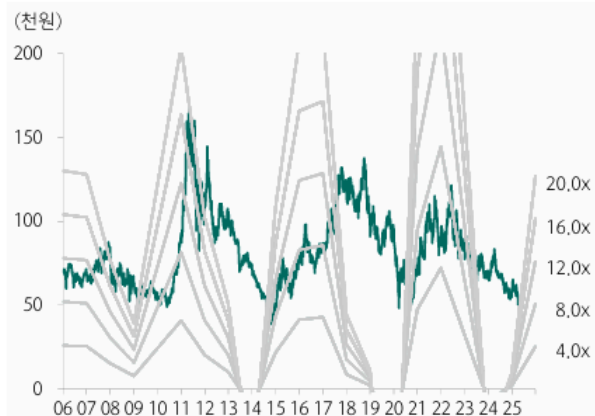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35,726.7	36,637.0	35,835.6	36,216.3
영업이익	1,354.6	422.2	570.0	1,500.5
세전이익	1,131.7	(332.5)	76.8	973.0
순이익	948.8	(193.0)	58.4	739.5
EPS	8,137	(1,656)	501	6,342
증감율	(54.91)	적전	흑전	1,165.87
PER	8.55	(33.09)	101.20	7.99
PBR	0.90	0.73	0.68	0.64
EV/EBITDA	5.73	10.50	9.73	5.46
ROE	10.83	(2.18)	0.67	8.22
BPS	77,522	74,590	74,832	79,417
DPS	1,700	125	1,750	2,250

도표 1. S-Oil 12M Fwd PBR 밴드차트



자료: 하나증권

도표 2. S-Oil 12M Fwd PER 밴드차트



자료: 하나증권



삼기에너지솔루션즈

북미 투자의 결실이 돌아오다

[출처] 신한투자증권 최승환 애널리스트

북미법인 선제적 투자, 매출 확대 낙수효과로

삼기에너지솔루션즈 별도부문은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을 보호하는 필수 부품인 엔드플레이트를 LGES향으로 대부분 납품. 해당 분야는 빠른 고객확장에도 불구하고 Chasm으로 어려웠으나, 2027년 성장 재개 전망. 2025년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북미 법인. 2022년 선제적 투자했던 북미 현지생산 법인이 트럼

프 보호무역 강화 속 빠르게 성장하며 전사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상장 이후 부진했던 주가의 턴어라운드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

북미 생산법인이 성장의 핵심 축

삼기에너지솔루션즈는 모회사 삼기와 JV(66:34)로 2022년 북미 현지에 선제적 생산법인 투자 단행, 총 1.3억달러 투자(지분 0.7억달러, 현지 차입 0.6억달러). 최근 보호무역 강화로 북미 현지 생산 확대 추세. 북미 법인이 영위하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은 특히 현지 업체가 희소하여 효용가치가 높음 북미법인 매출액 2024년 101억원 달성. 올해는 1Q25에만 135억원, 연간으로 550억원 전망. 북미법인 당기손익은 2024년 -145억원에서 1Q25 -5억원으로 크게 개선되었고, 연간 당기손익 소폭 흑자 기대. 현재까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수주해 왔으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수주도 확대 추세. 북미법인 2027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영업이익률 7% 달성 전망

Valuation & Risk: 2025년 흑자전환 기대

2025년 매출액 1,348억원(+36.5% YoY), 영업이익 35억원(흑자전환) 전망. 별도 매출은 전년과 유사하나, 북미법인 매출액이 전년대비 445% 성장하며 전사 매출성장을 견인. 별도 매출은 Chasm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메이저들의 현지 JV 발주 확대에 힘입어 2027년부터는 매출 성장세 회복 기대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3	90.9	0.7	5.0	32.4	8.7	2.3	36.4	-
2024	98.7	(6.3)	(0.6)	-	(0.9)	1.3	39.1	-
2025F	134.8	3.5	(3.3)	-	(4.5)	1.4	14.5	-
2026F	187.7	9.0	1.4	70.0	1.9	1.3	11.0	-
2027F	220.9	13.1	4.6	20.7	6.2	1.3	9.3	-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신세계푸드

수익성 개선으로 체질 개선 증명

[출처] DS투자증권 장지혜 애널리스트

1Q25Re: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매출 부진에도 이익 성장

신세계푸드의 1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액 3,586억원(-6% YoY), 영업이익 79억원(+70% YoY, OPM 2.2%)으로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 별도 실적은 매출액 3,537억원(-7% YoY)으로 제조서비스 1,348억원(-5%), 매입유통 2,147억원(-8%), 기타 42억원(+39%)을 기록했다. 수익이 저조한 단체급식 사업장 정리, 저수익 B2C 채널 축소, 비효율 외식 사업장 철수 및 직영점포 전환, 전년도 수입과일 판매 호조에 따른 기저 부담이 작용하며 매출은 감소했으나 판촉비 통제와 고마진 채널 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다. 동사의 연결 판관비율은 1Q24 15%→1Q25 14.7%로 하락했고 영업이익률은 1.2%→2.2%로 상승했다.

2분기~하반기도 실적 성장 기조 이어질 전망

신세계푸드의 25년 실적은 연결 매출액 1.47조원(-4% YoY), 영업이익 342억원(+65% YoY, OPM 2.3%)으로 수익성 개선을 지속할 전망이다. 1분기에 이어 저수익 매출처 축소로 외형은 감소해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동사는 마진이 높은 단체급식 사업장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하고 있고 노브랜드버거 2.0(NBB 2.0) 모델을 통해 외식 사업도 확장할 계획이다. NBB 2.0 전략은 기존 출점 비용의 60% 수준으로 창업이 가능한 15평 규모의 소형 콤팩트 매장을 배달과 포장 비중이 높은 지역에 출점해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이다. 또한 동사는 가성비 신메뉴를 출시하고 재료 품질 개선으로 2030년까지 버거 Top3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브랜드버거 프랜차이즈 성장에 따른 동사의 식재료 공급 확대 등 사업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만원 유지

신세계푸드에 대해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M Fwd EPS에 목표배수 10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동사는 부진한 내수 소비 환경과 인플레이션 부담 속에서 비용 통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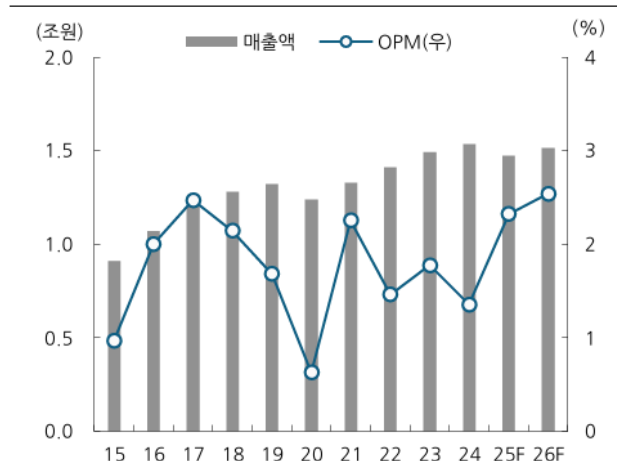
저수익 사업장 축소, 제조 역량을 강화하며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실적 성장 모멘텀만으로도 현 주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411	1,489	1,535	1,473	1,513
영업이익	21	26	21	34	38
영업이익률(%)	1.5	1.8	1.4	2.3	2.5
세전이익	-5	15	10	23	27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	11	11	18	21
EPS(원)	-1,390	2,749	2,892	4,671	5,433
증감률(%)	적전	흑전	5.2	61.5	16.3
ROE(%)	-1.9	3.7	3.8	6.0	6.6
PER(배)	-34.6	14.4	12.4	7.1	6.1
PBR(배)	0.6	0.5	0.5	0.4	0.4
EV/EBITDA(배)	7.5	6.3	5.3	4.3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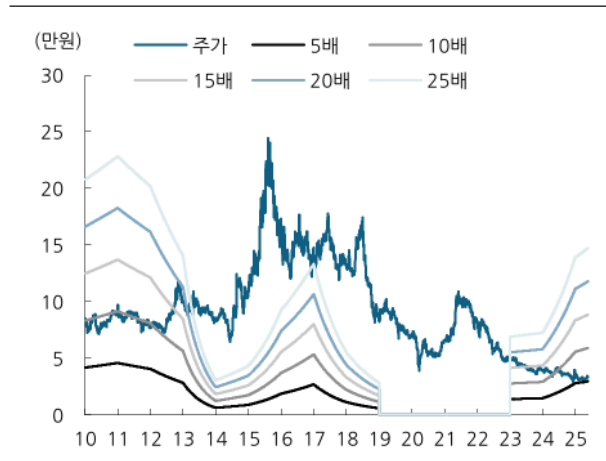
자료: 신세계푸드,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그림1 신세계푸드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신세계푸드,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2 신세계푸드 PER 밴드차트



자료: 신세계푸드,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작지만 숨은 강자

[출처] 상상인증권 김혜미 애널리스트

전방 산업 팽창에 따른 수혜 지속될 전망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미용기기 등 다양한 제품의 안정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기존에는 피부 적용 제품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의약품을 제외한 전반적인 헬스케어 소비재로 시험 범위를 확대하며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인디브랜드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K-뷰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으며, 진출 지역의 다변화와 함께 미용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연관 산업으로의 확장이 동사에 추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거래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들의 지속적인 진입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고객사들의 해외 진출 확대에 힘입어 영문 보고서 작성(23년 1,050건 → 24년 1,450건), FDA 등록 대행 등 해외 사업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가시화되고 있는 역대 최대 실적 전망

동사는 1Q25 연결 매출액 65억원(yoy +54%), 영업이익 19억원(yoy +192%)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2025년 연간 목표는 매출액 240억원(yoy +35%), 영업이익률 30% 수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기대된다. 유사업체의 증가로 과거 대비 경쟁 강도가 심화되었음에도, 동사의 오랜 업력과 다양한 국내외 거래처를 기반으로 축적된 방대한 빅데이터, 이를 활용한 카테고리 확장성 등은 차별화 강점이다. 현재 총 capa 340억원(여의도 + 부평 센터 합산 기준)을 확보해 증가하는 수주 잔고에 대응 가능하며, 올해 자회사(케이오니리카)의 BEP 달성 역시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가총액에 준하는 충분한 현금 보유(1Q25 707억원)와 당기순이익을 감안한 낮은 밸류에이션(25E PER 8배)이 매력적이며, 향후 해외 M&A 가능성 또한 열려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0	15	7	7	224	25.5	19.8	0.8	16.8	0.0
2021	17	6	7	243	18.9	16.8	0.5	12.3	0.8
2022	18	6	7	238	12.8	11.0	1.3	10.7	1.2
2023	15	1	5	160	15.3	19.8	1.0	6.6	1.2
2024	18	3	6	194	10.9	11.3	0.8	7.7	1.9

자료 : K-IFRS연결기준,상상인증권



실리콘투

판을 바꾸는 유통사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은 애널리스트

글로벌 전선 장악 중, 질주는 시작됐다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는 49,000원을 유지한다. 실리콘투는 2025년 1분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전략적 입지를 빠르게 확장하며, 유럽, 중동, 북미 3대 축 중심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유럽 시장은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하며 지역 비중 1위로 부상하였고, 유럽 대형 리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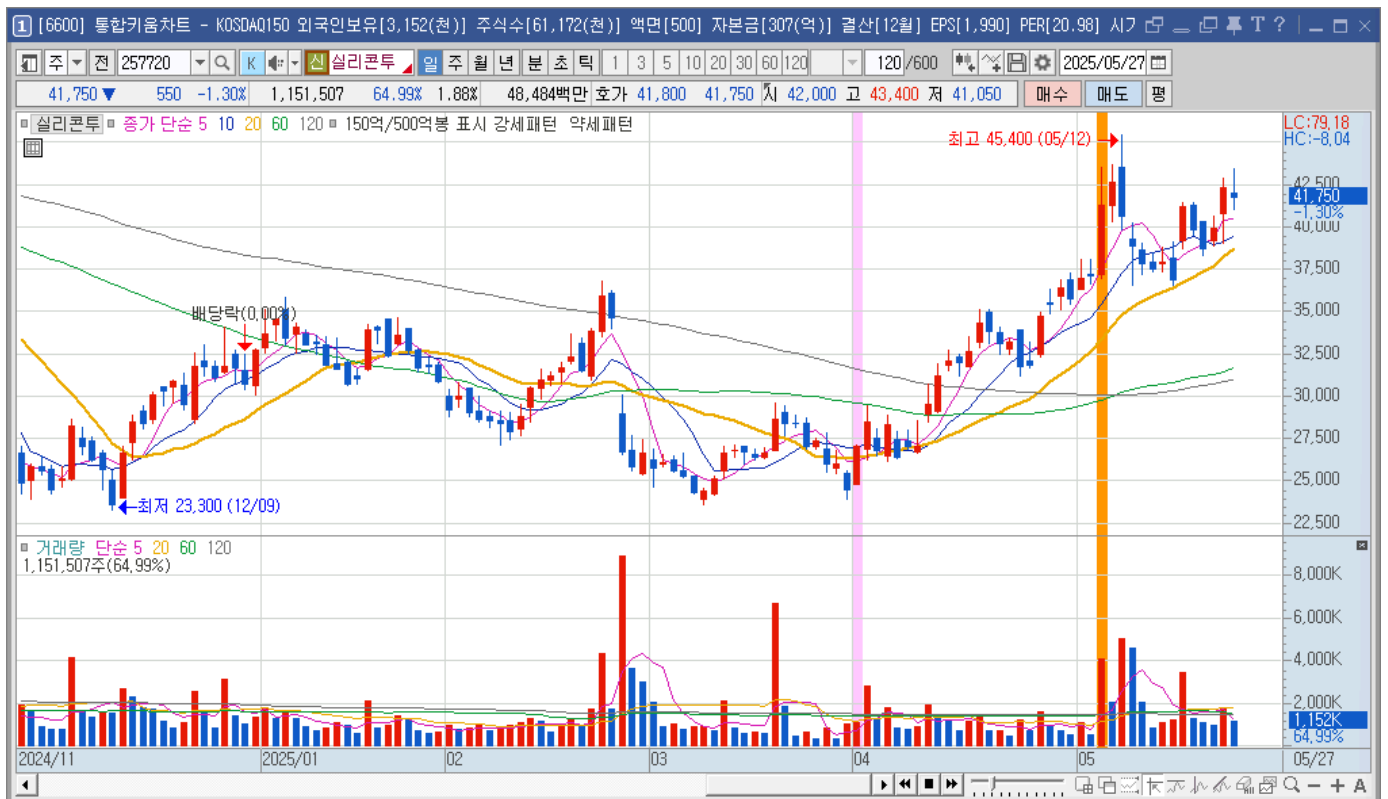
일러와의 직거래 확대, 폴란드 물류창고, CPNP 인증 대응 등을 통해 구조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중동은 아랍에미르를 거점으로 물류 인프라와 자회사를 기반으로 한 직접 수출 체계를 갖추며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미(멕시코) 및 러시아(CIS) 시장으로의 단계적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관세 절감형 유통 구조와 MBX(미미박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대형 리테일러 진입으로 회복 국면에 있으며, B2B·오프라인 중심 전략으로 재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신규 브랜드의 급부상과 다변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 기반의 안정적 유통 구조, 우위의 교섭력을 통한 마진 방어 역량도 동사의 중장기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반기 전망: 매출은 올라갔다, 이젠 마진이 움직인다

실리콘투는 2025년 연간 가이드ansom으로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800억 원, GPM 30% 이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1분기 실적을 보수적으로 연 환산한 수준으로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한 최소 기준선으로 해석된다. 2분기 들어서도 유럽과 중동의 매출 확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시장 역시 MBX 브랜드 공급 본격화와 주요 리테일러 입점 효과에 따라 점진적인 반등세가 관측된다. 한편, 1분기부터 시작된 판관비 통제, 물류비 절감, 수수료 축소 등 운영 효율화 노력은 연간 수익성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GPM은 현재의 31.6% 수준을 단기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실리콘투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전제로 판매단가 인상, 마진 중심 전략으로의 전환도 병행할 계획이며, 이러한 수익성 방어와 성장 기반의 균형 전략은 장기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계산 (12월)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3,429	6,915	10,857	13,000
영업이익	478	1,376	2,087	2,600
지배순이익	380	1,207	1,690	2,150
PER	9.6	14.5	14.5	11.4
PBR	2.7	6.7	6.0	3.9
EV/EBITDA	7.7	12.7	10.8	8.9
ROE	32.9	60.9	48.4	38.8

자료: 유안타증권



KCC

순이익 급증으로 재평가를 받을 시점

[출처] IBK투자증권 이동욱 애널리스트

삼성물산 및 HD한국조선해양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금융수익 급등 전망

지난 3월 말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20%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는 바이오부문의 수익성 방어, 배당 증가, 지분 매각 이익 등으로 세전이익이 분기 최대치를 기록하며 실적 호조를 나타낸 데 기인한다. 또한, 삼성에프스홀딩스의 인적분할 결정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에 따른 NAV(순자산가치) 증가 전

망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한편, KCC는 삼성물산 지분 10.01%(약 1,7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물산 주가 변동은 동사의 영업외단 금융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삼성물산 주가가 올해 6월 말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분기 금융수익이 4,000억 원 이상 증가하며 순이익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또한, 동사의 외화순부채는 달러 기준 약 15억 달러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점 대비 하락함에 따라 외화환산손익 개선으로 추가적인 순이익 향상이 전망된다.

더불어, 보수적 추정을 위해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HD한국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이 3월 말 이후 6조 원 이상 증가했다. 동사의 HD현대조선해양 지분율 약 3.91%를 고려할 때, 금융수익이 2,000억 원 이상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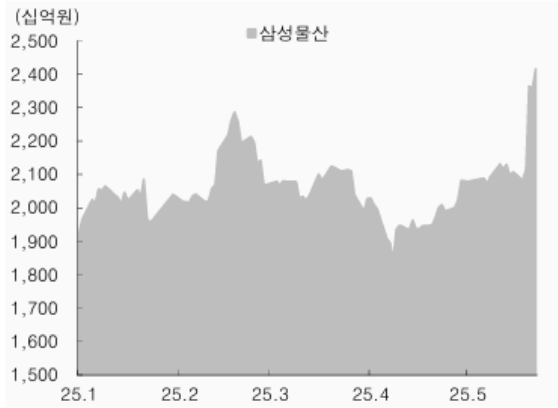
재무구조 개선세 지속

동사는 올해 주요 보유 토지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완료했다. 토지 재평가 차익은 1.2조 원, 투자부동산 재평가 차익은 3,000억 원으로, 이연법인세부채 등을 감안해 자본이 약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작년 4분기 160%에서 올해 1분기 141%로 감소하며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또한, 동사는 작년 말 4억 달러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하며 전체 인수금융의 25%를 상환 완료했고, 이를 통해 연간 약 400~5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 올해에도 금융자산을 활용해 비슷한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하며 이자비용을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차입구조를 장기화하며 유동성을 확대했다. 재작년 단기 차입금은 2.1조 원으로 전체 차입금의 40% 수준이었으나, 차입구조 장기화를 통해 올해 1분기에는 약 28%로 감소했다.

(단위:십억원,배)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6,288	6,659	7,062	7,234	7,676
영업이익	313	471	448	510	579
세전이익	244	470	622	495	643
지배주주순이익	213	311	470	386	502
EPS(원)	23,931	34,948	52,907	43,427	56,460
증가율(%)	528.0	46.0	51.4	-17.9	30.0
영업이익률(%)	5.0	7.1	6.3	7.1	7.5
순이익률(%)	1.5	4.4	6.7	5.3	6.5
ROE(%)	4.1	6.1	8.2	5.9	7.2
PER	9.5	6.7	5.1	6.3	4.8
PBR	0.4	0.4	0.4	0.4	0.3
EV/EBITDA	8.0	7.0	7.7	7.2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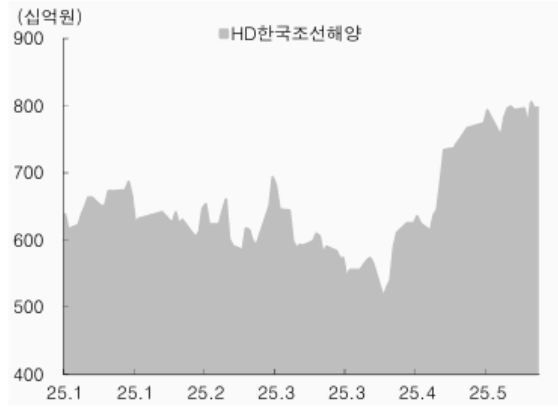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KCC의 삼성물산 보유 지분 가치 추이



자료: Fnguide, IBK투자증권

그림 2. KCC의 HD한국조선해양 보유 지분 가치 추이



자료: Fnguide, IBK투자증권



